



1 양승조 지사(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충남도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제21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했다. 2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 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시대’ 연다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버스’를 시작한 충남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시작한다.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교통복지의 새 역사를 연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 5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무료 버스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비용사회 구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을 위해 도입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2천682명, 만 13~15세 5만7천971명, 만 16~18세 6만1천151명 등 총 26만1천804명이다.

지원은 내년 6~12세를 시작으로, 2023년 13~15세, 2024년 16~18세 등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이를 위한 총예산은 145억5천만원이며, 기존 75세 이상 노인 등까지 합하면 연간 443억5천만원으로 늘게 된다. 무료 버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만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만1천여명 가운데,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 인원은 18만7천여명(62%), 누적 이용 횟수는 2천342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노인에 이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버스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업무협약도 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와 각 시군이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사업장의 근로자 1만3천여명으로 총 11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도와 각 시군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 올해 사회보험료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통해서 ▲ 방류 결정 즉각 철회 ▲ 투명한 정보 공개 ▲ 국제적 과학적 검증 수용 등을 촉구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는 “충청남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사능 왜란에 끝까지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